

##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언약교회 되길”

### 언약교회(Covenant Korean Church) UMC 탈퇴, 독립교회로 새 출발하며 설립 예배 및 취임 감사예배 드려

지난해 12월 연합감리교회(UMC)에서 탈퇴하고 올해 1월 독립교회로 출발한 언약교회(Covenant Korean Church, 장수영 목사)가 성령강림절인 19일 오후 4시에 설립예배와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설립예배에서 ‘다시 태어나는 교회’(요한복음 3:5-7)란 제목으로 설교한 이은철 목사(감리교 은퇴목사)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탄생했다. 이날에 언약교회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며 “성경은 거듭남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주인의 돈을 훔친 오네시모가 신실한 주의 종으로, 죄인의 상징인 세리 삭개오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로 태어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언약교회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단의 대한 실망으로 상처받은 성도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저도 상처를 받았다. 이제 과거를 떨쳐 버리고 독립교회로, 성령으로 우뚝 서기를 기도한다”

며 “교단의 황포로 돈은 빼앗겼지만 여러분 믿음이 빼앗기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넓은 길의 길을 포기하고 좁고 험한 길, 성경적 진리의 길을 선택한 언약교회 성도들에게 존경과 치하를 드린다. 이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취임예배에서 답사를 한 장수영 담임목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보다 끝까지 잘 버텨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

면서 “때로는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조언 해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드리겠다. 잘하는 일이 별로 없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에 애쓰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하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격려사에서 구진모 목사(월서연합감리교회)는 “교회의 머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 한다. 교회에서 평가림이 있을 때 힘들어지지만 예수님의 편에 서면 모든 사람이 우리의 편이 되는

것”이라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설립예배에서 립학춘 목사(라구나힐스교회)가 기도를, 안병돈 장로(언약교회)가 교회설립선언을 했다. 취임예배에서는 고광선 목사(한길교회)가 기도를,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설교를, 장수영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토마스 멩 기자



올해 1월 독립교회로 출발한 언약교회(장수영 목사)가 성령강림절인 19일 오후 4시에 설립예배와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일보

### 지면 안내

- 2면: 미주 대한신학대학 및 평양신학대학 졸업식 동신교회, 순병렬 목사 초청 성령 강림절 예배
- 3면: 더블레싱 창립감사예배
- 4면: 연합성가합창제 참가팀 전체 모임
- 6면: 신학대 졸업식 일정
- 8면: 한국 방문 섬머 캠프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 10면: 아메리칸 아이돌 파릴레 ‘하나님의 선하심’
- 12면: 미주바이블백신센터 오픈, 새생명 오아시스 붓으로 말씀쓰기,

## 아이티 갱단, 미국 선교사 부부 등 3명 살해 · 시신 불태워

아이티의 갱단이 젊은 미국인 선교사 부부와 아이티인 선교 단체 지도자 1명을 살해한 뒤, 2명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는 데이비 로이드(Davy Lloyd, 23)와 나탈리 로이드(Natalie Lloyd, 21), 미국 오클라호마에 기반을 둔 선교단체 ‘미션스인 아이티’(Missions in Haiti) 이사인 주드 몬티스(Jude Montis, 45) 주교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희생자 3명은 23일 밤 선교 단지에서 무장한 남성들에게 습격

당했다. 데이비와 나탈리는 아이티에서 전임 선교사로 사역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종교 봉사에 헌신하고 있었다.

이 부부는 2022년 6월 결혼 후 아이티로 이주했으며, 데이비 로이드의 부모가 2000년에 설립한 단체인 미션스인아이티에서 사역해왔다. 이 단체의 고아원은 포트토프랜스 북쪽의 리존에 위치해 있으며, 이 곳은 폭력적인 갱단들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이다.

나탈리 로이드는 미주리주 하원 의원 벤 베이커의 딸이다. 베이커

의원은 딸의 사망 직후 페이스북에 “내 마음이 천 갈래로 찢어졌다. 이런 고통은 느껴본 적이 없다”고 비통함을 표현했다.

24일 베이커 의원은 아이티 주재 미국 대사관이 딸과 사위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히며, 이는 비극 속에서 큰 위안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아이티에는 시신을 방부 처리할 시설이 부족하며, 시신을 운송할 항공사를 찾는 것이 어려워 미국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 6면에서 계속 김유진 기자



미국인 선교사 데이비 로이드와 나탈리 로이드. ©벤 베이커 페이스북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사 고 변호사 그룹  
 전문제로 인턴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언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 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제6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6th Joint Youth Retreat  
 Repent, then, and turn to God, so that your sins may be wiped out,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Lord, Acts 3:19  
**Fresh Fire**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불  
 | 날 짜 | 2024년 6월 17일 (월)-19일 (수)  
 | 장 소 |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 강 사 | 한사무엘 목사  
 (전)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사역국 교역자  
 (현) 말랑 영산신학대학원 담당  
 (현) ICA 수라바야 교회 부목사  
 | 대 상 | 청소년 선착순 100명 (2024-25년 학기 기준 6~12학년)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열지 않는 한인 교회의 학생에 한함  
 | 등록기간 | 6월 7일 (금)까지  
 | 등록비 | 무료  
 · 등록문의 ·  
 www.lafgc.com  
 나성순복음교회  
 323.913.4499  
 lafgcd@gmail.com

# 미주 대한신학대학 및 평양신학대학 졸업 및 학위 수여식

## 미주대한신학대, 예장총회 대신교단 직영신학으로 승격

제 29회 미주 대한신학대학 및 제4회 평양신학대학 졸업 및 학위 수여식이 5월 15일(수) 오후 4시, LA 소재 벨렝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 김봉건 회장, PAVA 명원식 회장, 한국 중부대학 한국어과 교수 최태호 박사, 석정희 시인 그리고 미국 육군 대령 예편 Ray 씨 등이 명예 선교학박사를 수여받았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장 임병무 목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생활과 사도 바울 같이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달려 갈 길을 달려 가면서 죽도록 헌신과 충성과 봉

사하는 사명자들이 된 것을 축복한다.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죄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구원과 해방해 주신 예수님과 은혜와 권능을 주신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함께하시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 했다는 칭찬을 받고 의와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전했다.

주 로스앤젤레스 김영완 총영사는 “두 대학은 신학과 영성, 지성을 겸비한 미주지역 목회자를 양성하는 산실이자 지성의 전당으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미주대한신학대학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신교단의 직영신학으로 승격되는 경사도 있었다고 들



제 29회 미주 대한신학대학, 제4회 평양신학대학 졸업 및 학위 수여식이 개최됐다. ©기독교일보

었다. 두 신학대학 모두 앞으로 국제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복음 전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줄 것을 부탁한다. 여러분의 헌신은 복음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축사했다. 김민선 기자

## 손병렬 목사 초청 예배 ‘달힌 문을 여는 사람들’

남가주동신교회, 성령 강림절 예배

성령강림주일(19일)을 맞아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담임목사를 초청해 예배를 드렸다.

설교에 앞서 교회 전체가 고등부 졸업생을 위한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 백정우 담임목사는 “기록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이들의 꿈과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했다. 이후 모든 졸업생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했다.

손병렬 목사는 사도행전 12:5-15을 본문으로 ‘달힌 문을 여는 사람들’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먼저 본문을 통해 헤롯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탄압하며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둔 상황을 설명했다.

“베드로의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두명의 간수가 옥문을 지키고 있었다. 사도는 갇혔고, 복음의 문이 닫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라고 언급한 손 목사는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을 보자. 계속되는 전쟁과 이상기후, 경제적



동신교회 성령강림주일예배에서 설교한 손병렬 목사. ©동신교회

인 위기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지만 OECD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나라는 서로 다른 이념으로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건강의 문이 닫혀 있지 않은가? 흑여 자녀의 문, 물질의 문, 사업의 문 이외에도 여러가지 상황의 문이 닫혀서 하루 하루 눈물로 사는 주의 자녀들이 많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문은 반드시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하다.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 ‘열쇠’는 본문에 나온 베드로 사도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감옥에서 불평이나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닫힌 문을 여시고 당신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신다. 우리는 더욱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자”며 기도의 중요성과 믿음의 태도를 강조했다.

손병렬 목사는 2004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목회했고, 2014년 8월 포항중앙교회 제9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시무해 오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 “다양한 프로그램, 시설 이용하면 풍요로운 삶 영위”

지미 김 LA공원국장 한인회 방문 ‘기존시설 잘 활용하면 큰 도움’ 은퇴한 시니어에게 적합한 많은 일자리 제공

한인2세 지미 김 LA시 공원국장이 28일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를 방문해 한인 등 타운 주민들에게 시내 공원 현황을 설명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공원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김 국장은 2022년 8월 에릭 가세티 당시 시장에 의해 공원국장으로 임명됐다. 공원국은 풀타

임,파트타임을 합해 8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시 주요부처 중 하나이다.

김 국장은 “공원국은 여름방학 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88개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36개 수영장에서 단 10달러에 제공한다”며 “은퇴한 시니어에게 적합한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피크 시즌에는 8000명의 파트타임 직원이 필요한 만큼 관심 있는 한인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LA한인회 (323) 732-0700로 하면 된다. 정다혜 기자



단체사진 왼쪽에서 3번째 지미 김 LA공원국장, 바로 옆 제임스 안 LA한인회 회장 © 기독교일보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4년 학위수여식에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이사진, 교수진 및 졸업생 일동은 본교 학위수여식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참석하시어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와 격려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학위수여자

- D.Min : 배윤범, 김기철, 서영수, 이현수
- Th. M : 피터런, 김지훈, 윤석중
- M.Div : 서봉건, 김인창, 강기수, 이원철, 박수철, 서문용채, 최수창, 안정남
- B.A : 김우연, 서진권, 이희정, 김진중, 이지우, 박선우, 김진영, 서유리

일시 : 2024년 6월 8일(토) 오전 11시

장소 : 마가교회 본당

520 S La Fayette Park Pl, #200, Los Angeles, CA 90057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 TEL:213-272-6031

## 2024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 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 (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여름학기 개강 6월 18일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 신학학사과정 (B.Th)

### ■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 TEL:213-272-6031

더블레싱교회 창립감사에배

# “이미 넘치게 받은 복, 나누는 교회 될 것”

민종기 목사, “열방의 굶주림을 해결한 요셉의 특별한 은혜가 더블레싱교회에 함께 하길”

더블레싱교회(담임목사 피세원)가 창립감사에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지역과 열방을 향해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성령강림주일이었던 5월 19일(주일)에 교회 본당에서 열린 창립감사에배는 인근각처에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더블레싱교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피세원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세워진 ‘더블레싱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힘 있게 사역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설교를 전한 민종기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에덴을 떠나서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교회는 끊임없이 개척되고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시면 그 교회는 부흥된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은 형제의 미움과 오해의 화



더블레싱교회(담임목사 피세원)가 성령강림주일이었던 5월 19일(주일)에 창립감사에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지역과 열방을 향해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기독일보

살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정욕과 유혹의 화살을 다 물리쳤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활이 더 굳세고 힘 있는 은혜가 더블레싱교회에 함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님의 복은 어려움만 벗어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 축복이다”라면서 “요셉이 받

은 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함께 열방의 굶주림의 문제까지도 벗어나게 하는 특별한 은혜다. 이 은혜가 더블레싱교회 위에 함께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대표)는 “더블레싱교회는 시작부터

준비된 교회고 구별된 교회다. 오순절 성령강림절에 초대교회가 시작됐듯 성령강림주일에 교회 창립은 너무 적절하고 의미 있는 날이다. 이미 받은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라”고 축사했다.

이 밖에도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원로), 김승욱 목사(할렐

루야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이날 창립예배는 피세원 목사의 인도로 박형석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CTS합창단의 특별찬양 후에 창세기 49장 22~26절을 본문으로 민종기 목사(KCMUSA 이사장)가 ‘요셉을 복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순서로 현악 4중주 특별찬양 후에 이광혁 장로가 교회를 소개하고 창립과정을 설명했다.

문상면 목사(생명샘교회 담임, CRC증경노회회장)가 교회창립선포와 기도 후에 더블레싱교회의 창립을 선포했다. 모든 예배는 김인철 목사(오렌지가나안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더블레싱교회는 지난 2024년 1월 부터 예배를 시작하고 제자반과 커피브레이크를 통해 소그룹모임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교회 위치는 530 N. Dale Ave., Anaheim, CA 92801이며, 목요 기도회는 오후 7시 30분에, 주일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리고 있다. 조셉 리 기자

## 무료 제6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나성순복음국제제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이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를 섬기고자, 자체적으로 여름 청소년 수련회를 열기 힘든 교회들을 위해, 제6회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는 6월 17일(월) 오후 3시부터 19일(수) 오후 2시까지 나성순복음국제제식기도원에서 개최되며 인도네시아 말랑 영산신학대학원 담당 한사무엘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 수련회는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청소년에게 복

음의 능력을 전해 왔다. 수련회 참가대상은 중고등부 학생 (6-12학년, 2024년 8월 기준) 선착순 100명으로 신문 광고의 QR 코드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다. 나성순복음교회의 후원으로 숙식을 비롯한 일체 비용은 무료다. 김민선 기자 등록문의: www.lafgc.com, 323-913-4499, lafgcd@gmail.com



나성순복음국제제식기도원 청소년 연합수련회. ©lafgc.com

## 선교사 가정 돕는 사랑의 콘서트 성료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이 지난 5월 18일(토) 오후 5시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김종규 목사)에서 제14회 CMF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CMF 창립 25주년과 캐리스(Charis Christian Chamber)의 10주년 창립을 기념하여 열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선교사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날 콘서트에는 250여 명이 참석해, 선교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김종규 목사(오렌지카운티제일 장로교회 담임)의 기도로 시작된 콘서트의 첫 공연은 엄마인 남혜승 사모(바이올린), 딸인 김은유(첼로), 김진경 사모(피아노)의 삼중주였다.

이어서 11명의 음악 전공자로 구성된 캐리스 크리스천 챔버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연주했고, 근이양증 장애를 가진 배우 양이 ‘충만’과 ‘Better than I’를, 소프라노 이효정이 ‘모든 것이 은혜’와 ‘생명의 양식’을 독창했다.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이 지난 5월 18일(토) 오후 5시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제14회 CMF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캐리스가 ‘시편 23’ ‘위대하신 주’, ‘은혜 아니면’을 연주했다. 앙코르 곡으로 ‘주기도문’을 찬양한 후, 김철민 대표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외롭고 힘든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선교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 합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CMF가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 20 가정의 사역과 기도 제목을 담은 동영상 상영했고

마지막으로 순서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를 찬양한 후 김종규 목사가 선교사들을 위해 축도했다.

CMF는 선교사 17 가정에 각 \$ 2,000의 선교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CMF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셔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며 “기도로 함께 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 20<sup>th</sup>

ANNIVERSARY

## 창립 20주년 감사 & 임직예배

발렌시아 샘물교회 사명

100% 성경

100%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운데 발렌시아 샘물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100% 복음과 100% 성경을 믿고 전하는 교회의 사명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은혜가 부어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발렌시아 샘물교회를 위해 사랑과 격려  
 축하와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24년 6월 9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발렌시아 샘물교회 본당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
- 문의 : 661-219-5434  
sammoolchurch@gmail.com

김영길 원로목사  
**설교**

이건창 담임목사

VALENCIA SPRING WATER CHURCH

# 발렌시아 샘물교회

# 제36회 연합성가합창제 참가팀 전체 모임

합창제 6월 2일(주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9개 팀 참가, 수익금은 선교사 자녀 장학 기금으로 사용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는 5월 20일(월)에 가든 브로브에 위치한 북경중식당에서 제36회 연합성가합창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OC지역 교계의 화합과 일치, 연합을 다지는 합창제가 될 것을 다짐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20일(월) 오전 11:30에 가든 브로브에 위치한 북경중식당에서 제36회 연합성가합창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OC지역 교회와 교계의 화합과 일치, 성가를 통한 교회 네트워크를 다지는 성공적인 합창제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모임에는 남가주사랑의교회를 비롯해 참여교회 지휘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6월 2일 진행에 대해 의논하고, 각 연주팀의 요구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율했다.

신용 회장은 "OC지역 교회와 교계가 연합하고 교류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합회가 합창제를 기획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합창제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선교사 자녀들에게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홍보위원장 윤우경 전 이사장은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합창제를 다시 시작하게 되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 올해의 성공적인 행사가 내년과 그 이후의 행사를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성공적인 이번 합창제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기대감과 호응을 부탁했다.

출연 순서를 정하고, 대기실 사용과 악기 사용, 리허설 시간 등 당일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했다. 합창제는 Orange Mis-

sion Choir의 연주를 시작으로 은혜한인교회의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연주를 마지막 순서로 잡았으며, 모든 출연자가 함께하는 "할렐루야" 연주는 음악감독을 맡은 김미선 지휘자가 맡기로 했다.

이번 합창제는 OC지역에서 음향과 무대시설이 탁월하여 자체행사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 공연과 행사를 개최하는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에서 열린다. 2023년부터

합창제를 기획하고 준비한 연합회는 올 초에 일찌감치 장소를 결정하고 출연교회를 섭외했다.

올해는 시니어들도 구성된 성가대 두 교회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합창제 참가팀으로는 감사한인교회, 남가주동신교회 여성콤파이어, 남가주사랑의교회, 열바인새생명한인교회, 열바인침례교회, 은혜한인교회, LW한인커뮤니티교회, Orange Mission Choir, 위트컴여

성합창단이며, Kairos Singers가 특별출연한다.

이번 합창제의 수익금은 제5차 선교사자녀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연합회는 4회에 걸쳐 177명의 선교사자녀들에게 88,500불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연합회는 되도록 많은 선교사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합창제에도 선한 뜻을 가진 후원자들이 더 많이 나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합창제 프로그램 광고 후원과 현장에 많은 성도들이 와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광고후원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매월 정기 조찬기도회와 상반기, 하반기 주요 행사를 진행하며 평신도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신앙회복과 올바른 기독교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OC인근지역의 평신도라면 교회나 교단을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합창제 및 광고후원문의: 562-399-2022(신용 회장), 213-500-5449(윤우경 홍보위원장)

## “우리 교회 밝고 선명한 LED 스크린으로 바꿔볼까?”

### LED스크린, 예배 집중에 도움, 선명한 영상 제공, 증저가로 판매

바야흐로 영상의 시대, 듣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깨끗하고 선명한 대형 화면의 필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대이다.

세리토스에 위치한 고품질LED 스크린 수입, 설치 업체 "TRINITY MS"가 고품질의 고품질 LED 스크린을 합리적인 증저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현재 고품질 LED 스크린은 많은 이민 교회에서 쓰이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 회사는 LED스크린을 판매와 설치 및 AS까지(1년) 한다. 스크린 크기는 123인치부터 시작해 154, 170, 192, 231, 308인치까지 있으며 원하는 경우 울트라 와이드모

가능하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견적을 낼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LED를 사용할 때 장점은 밝게 사용할수 있다는 점이라 젊은 사람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좋다"며 "요즘 트랜드가 LED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예배 집중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불이 켜 있는 상황에서도 선명하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 회사 LED 스크린 설치의 혜택으로는 할부와 리스가 있다. 최장 60개월까지 가능하고 크레딧 체크를 보지 않는다. 단 조건으로 총 설치 비용의 5% 은행 잔고만 확인이 된다면 설치할수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설치 방법은 셀프 설치가 가능하고, 어려우면 설치를 제공하며, 사용 방법을 리모

트 컨트롤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이뿐만 아니라 야외 예배, 공연 설치 및 음향 장비 렌트, 엔지니어링 지원도 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문의: 657-705-6370, sung@trinity-ms.com, <https://www.trinity-ms.com/services-8>

P2.5 123 inch LED SCREEN    More Info

P2.5 154 inch LED SCREEN    More Info

고품질LED 스크린 수입업체 TRINITY MS가 고품질의 LED 스크린을 증저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trinity-ms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Proverbs318Law.com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무료상담    **(213)210-3651**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Dlee@proverbs318law.com

#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하는 특별 행사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

# 시니어를 위한 청춘 사진관



ISO 200

만 64세 이상의  
시니어라면 누구나!

(가정의달 이벤트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센터메디컬그룹



단독 사진

부부 사진

(두 종류 중 한가지를 선택!)

오늘의 가장 젊은 당신의 순간을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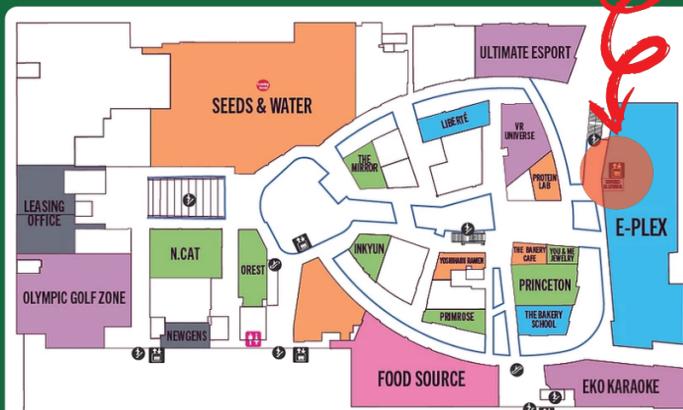
6월 7일, 21일 (9:30am - 12:00pm)

소스몰 센터메디컬그룹 사무실

(E-PLEX가 위치한 건물 6층 D-611에 있습니다.)

6940 Beach Blvd D-611, Buena Park, CA 90621

이곳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세요



본 이미지는 소스몰  
2층의 안내 지도입니다.

본 행사 예약자는 센터메디컬그룹의 홍보성 메시지를 수신동의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월~금 오전 8시반~오후 5시반]

문의전화

# (714) 904 - 1701

# 남가주 신학대 학위수여식 일정

### 6/1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미주장신(총장 이상명 박사) 44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 1일(토) 오전 10시 홀러톤 장로교회(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에서 열리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참석도 가능하다(Youtube.com/PTSA\_edu).

이날 졸업식 학위수여자는 모두 51명으로 목회학 석사(M.Div.) 14명, 선교학박사(D.ICS) 2명, 신교학박사(Ph.D.C.S.) 13명 등이다. 호성기 목사(세계전문인선교회, PGM) 국제대표가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 6/3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졸업 및 학위수여식이 6월 3일 월요일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에서 개최된다.

### 6/1 월드미션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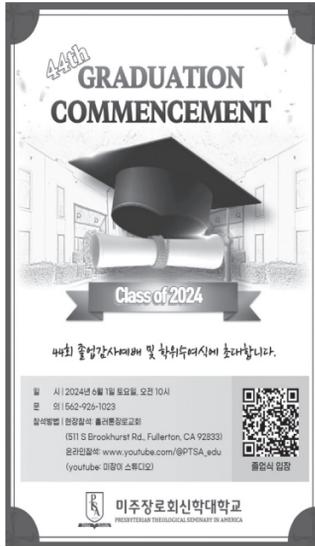
제33회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이 6월 1일(토) 오후 1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린다.

### 6/8 풀러신학교

제 75회 풀러신학교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이 6월 8일(토) 오전 10시에 레이크 에비뉴 처치(Lake Ave Church, 393 N Lake Ave, Pasadena, CA 91101)에서 개최된다. fuller.edu/watch에서 졸업식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 6/8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024년 학위수여식이 6월 8일(토) 오전 11시 마가교회 본당(520 La Fayette Park Pl. #200, LA, CA 90057)에서 진행된다. 목회학 박사(배운범, 김기철, 서영수, 이현수), 신학 석사(피터원, 김지훈, 윤석중) 및 목회학 석사(서봉건 외 7명), 학사학위(총 8명)가 졸업한다. 주디 한 기자



행된다. 목회학 박사(배운범, 김기철, 서영수, 이현수), 신학 석사(피터원, 김지훈, 윤석중) 및 목회학 석사(서봉건 외 7명), 학사학위(총 8명)가 졸업한다. 주디 한 기자

## 남가주 이모저모

**LA씨티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설립 10주년을 맞은 LA씨티교회가 오는 6월 2일(주일) 오전 11시에 교회 본당(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에서 1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  
문의: 323-833-9090



애우 아동들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된다.

### 은혜와평강교회 40주년 기념 성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가주노회 소속 은혜와평강교회(곽덕근 목사, gracepeace.org/)가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오는 5월 31일(금)부터 6월 2일(주일)까지 창립 40주년 기념 부흥성회와 기념 오찬 및 감사 축제를 개최한다.

**일정 : 부흥성회 5/31(금) 오후 8시, 6/1(토) 새벽 6시, 오후 7시, 6/2(주일) 오전 11시**  
**감사축제: 6/2(주일) 오후 12:30(오찬), 오후 1:30(감사축제)**

### 발렌시아샘물교회 20주년 창립 감사예배

발렌시아샘물교회(담임 이견창 목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창립 감사예배 및 임직 예배를 6월 9일(주일) 오후 4시에 교회 본당(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에서 드린다.



### 제1회 풀러신교음악회

풀러신교학박사동문회(회장 김권수 박사)가 제1회 풀러신교음악회(준비위원장 씨니 김 박사)를 오는 6월 9일(주일) 오후 5시 30분에 파세디나에 있는 사랑의빛선교회(윤대혁 목사)에서 개최한다.

우크라이나의 이훈우 선교사(풀러 신교학박사 동문)와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이번 음악회에는 찬양사역자 이선행(재즈피아니스트), With John Park, (Electric Bass) Randy Kim Band, 조영석 외 CCM singers, 김은정(수어찬양), 아모스 이(사회 및 헌금송) 등이 출연한다.  
문의: 626-437-0045(이훈우 박사).

### 그랜드캐년 탐사여행

세계장조선교회(회장 박창성 목사)가 그랜드캐년 탐사여행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되는 그랜드캐년 탐사여행은 그랜드캐년을 비롯해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과 앤젤로포캐년, 세도나 등을 방문하게 된다.

라스베가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이번 여행의 참가비는 1인당 1천125달러다.

**참가 문의: 503-330-2981, info@wcmweb.org, 웹사이트 www.wcmweb.org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디 한 기자

→ 1면 기사 <아이티 갠단...볼태워>에 이어서

데이비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로이드는 CNN에 공격 당시 아들과 통화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자녀들이 건물 안에 있을 때 데이비가 집으로 끌려가 묶인 채 갠단에게 약탈당한 상황을 설명했다. 더 많은 무장 갠단들이 도착하자 통화는 끊겼고, 새로 도착한 갠단원 중 한 명이 총에 맞은 후 격렬한 반발로 일어났다.

데이비드는 세 사람이 집 안에서 자신들을 방어하며 숨어 있었지만, 결국 갠단의 습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갠단은 문이 부서질 때까지 그곳에 총을 쏘며 그들을 공격했고, 데이비와 주드를 붙태웠다”고 말했다.

미션신인아이티에 따르면, 이 선교사 부부는 세 대의 트럭에 탄 무장한 남성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데이비 로이드가 선교회에서 트럭과 기타 소지품을 훔친 갠단원들에게 묶여 구타를 당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또 다른 무장 단체가 도착한 뒤 총격전이 벌어졌고, 결국 로이드 부부와 몬티스 주교가 살해당했다.

데이비드는 2005년에 데이비와 그의 형제들이 납치되었다가 21시간 후에 구조되는 등, 이 선교 단체가 수많은 도전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아이티 경찰은 국제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살해 사건을 조사 중이다.

백악관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아이티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이 승인한 국제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선교사들에 대한 폭력은 아이티에서 악화되고 있는 갠단 활동의 일부이다. 주로 미국에서 밀수된 무기로 무장한 갠단들은 수도와 다른 도시 전역에 퍼져 경찰서와 병원을 공격하고, 수감자들을 감옥에서 탈출시키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티 인구의 약 절반이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올해 1분기 갠단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전 분기에 비해 53% 증가했다.

이번 살인 사건은 아이티의 새로운 통치 위원회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케냐 경찰 병력의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에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자금 문제로 인해 병력의 배치가 지연되고 있다.

선교사들이 살해된 후, 미국은 케냐 정부에 경찰 병력의 신속한 파견을 촉구했다. AFP에 따르면,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아이티의 치안 상황은

가다릴 수 없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 병력의 “신속한 배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 아일랜드 · 노르웨이 · 스페인 “팔레스타인 공식 국가로 인정”

아일랜드·노르웨이·스페인 등 유럽 3개국이 오는 28일부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 3개국 정부는 22일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같은 결정이 “이스라엘에 반대하거나 하마스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나르 가르 스토레 노르웨이 총리는 “잔인한 갈등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선에서 후퇴하고 있는 온건한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힐 마틴 아일랜드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이 동등하게 안보, 존엄성, 자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지지한다”고 했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국민이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 같은 움직임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3개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모두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는 모두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러한 움직임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스라엘은 이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 주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해 이들에게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여군 납치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강해진 기자



### 2024 SPECIAL PROMOTION

## 개척교회를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개척교회의 칼라복사기 비용을 40~60% 절약할 수 있는 기회!

2024년 개척교회를 위한 칼라복사기 스페셜 프로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10년미만된 개척교회를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기존교회들은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복사기의 옵션, 모델, 사용량, 렌탈 기간에 따라서 Special discounted price가 결정되며 교회들의 렌탈가격은 모두가 다릅니다.

텍스트로 본인의 성함과 교회명을 남겨주세요. 전화드리고 간단 명료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213 705 7778(KOR)  
TEL: 213 999 7995(ENG)  
213 663 8970(ENG)  
greenmwild@gmail.com

## GREEN M.WILD IMAGESYSTEMS

본사는 기독교일보 공식 후원업체입니다

#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모든 예배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오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훈 담임목사**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 (Worship Location)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 (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전날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e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구부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714)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린이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새벽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토요일침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김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fice@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00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저녁기도회 오전 11:00  
 금요일아침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일예배 저녁 8시  
 수오(온라인)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추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 Youth 오후 2:00  
 목요일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피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김홍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침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오침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영어)  
 파워워십 2번매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매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

**오홍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중보기도회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c@gmail.com



# 한국 방문해 문화 체험하는 섬머 캠프, 모든 비용이 무료

일정은 7월 29일~8월 16일까지 항공료와 체제비 등 모든 경비 당진동일교회서 제공

미국 대학생을 한국으로 초청해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동시에 미국 문화와 언어를 한국의 중고등 학생들에게 소개해주어 서로 도움을 주는 섬머 캠프가 열린다.

한국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당진동일교회에서 오는 7월 29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 열리는 캠프에서는 미국 및 영국에서 한국에 온 대학생들을 초청해 한국의 중고등학생과의 홈스테이 교류와 각종 야외 활동과 교회 문화 체험을 통해서 서로간의 벽을 헐고 주의 나라를 위해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주제는 Camp Firelight! A Summer Camp Adventure with God이다.

한국으로 초청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항공료와 체제비 등 모든 경비는 당진동일교회가 제공되며, 이를 위해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해외해피업 사회복지회는 16일



미국 대학생을 한국으로 초청해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섬머 캠프가 열린다. 16일 오전에 은혜한인교회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독교일보

MOU체결을 했다. 초청되는 인원은 10명 내외로 결정됐다. 참가 자격은 대학에 재학중인(26세 이하) 학생으로 영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 능통해야 하며 한국어 구사력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주최측은 전했다. 참가 신청은 6월 중순까지며, 미주성시화운동본부(박인호 사무국장 213-663-2228)에게 문의하면 된다.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는 “지금껏 16차까지 진행된 캠프에

서 미주 학생들을 통해 시골의 아이들의 눈이 열리고 비전이 커지고, 미주 학생들은 한국 문화와 예배 체험을 통해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됐다”며 “주말에는 경북 공과 역사관 그리고 명동을 방문하고 북방 휴전선을 방문하는 일정 등이 있다. 인적, 문화적, 학술적 교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송정명 목사는 “전에 당진동일 교회에 방문했었는데, 당진 시내에

서 8킬로 떨어진 외진 곳에 교회가 위치해 있고, 어른 2천 명, 다음세대가 2천 명이 출석하고 있어 놀랐었다. 이번 캠프에서 많은 것을 보

고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외해피업 사회복지회의 이상구 목사는 “미주 학생들이 금요일 철야를 참여하는 등 한국교회를 배우게 된다. 처음에는 좀 낯설어하지만 예배 참여자가 되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많은 이들이 참석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 선한 일들이 더 확장되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기홍 목사는 “당진동일교회는 지방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다음세대를 잘 세울지를 고민하면서 부흥하고 있어, 대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라면서 “이민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문의: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박인호 사무국장 213-663-2228

## 강훈 기자의 weBridge 교회 탐방기

###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양국민 목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으로 예배는 시작된다. 기타 하나로 인도하는 찬양은 영혼을 울린다. 온 성도들이 전심을 다 하여 찬양하는 찬양 시간에 이미 은혜 가득하다. 찬양 두 세곡에 마음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린다. 대부분의 성도는 찬양을 마칠 때쯤 눈물이 가득하다.

함께하는 주은혜교회의 통성기도는 뜨겁고 간절하다. 회개와 감사 그리고 찬양과 간구는 양국민 목사와 온 성도의 뜨거운 고백이었다. 물 흐르듯 진행되는 예배는 성도들을 예배에 몰입하게 하였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헌신의 고백과 헌금에 이어서 말씀을 들었다. 드림과 반응이 조화를 이룬 예배에서 성도들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과 은혜를 받았다.

양국민 목사는 에스라 말씀을 강해했다. 강해하기 까다로운 본문이었지만 핵심을 잘 정리해서 성도의 삶과 교회 현실에 적용한다. 본문의 이해도 핵심 메시지 정리도 탁월했지만, 적용은 더욱 절묘했다.

<건강한 따름이들>이라는 설교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지도자를 따라야 할 성도들의 삶이 정리되었다. 아울러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가야할 길도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함께하는 주은혜교회(양국민 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소수가 모여 이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다. 선교에 힘을 모으고, 병약한 성도를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다.

함께하는 주은혜교회는 매주 토요일 새벽에 모이는 중보기도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한 세계 곳곳을 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살아 있는 교회다.

강훈 기자

## 북미 기독교 평화 네트워크 창립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모임인 북미 기독교 평화 네트워크 (이하. 기평넷, Korean Ecumenical Peace Network)가 5월 22일 워싱턴 디씨 소재 연합감리교 예배실에서 창립되었다. 이날 창립예배와 총회에는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공동 발기인에는 20개 교단 소속 120명이 참여했다. 북미 한인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정호 목사(UMC)는 “조국 한반도 평화의 그날이 오면 오늘의 이 모임이 작은 디딤돌이 되었다는 겨자씨 만한 기록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며 창립을 환영했다.

예배는 김태호 목사(PCUSA), 손태환 목사(PCUSA), 정영민 목사(RCA), 조동호 박사(퀸즈대)

등 연합 찬양팀의 인도로 시작되었다. 이어 조원태 목사(PCUSA)의 사회와 김기리 신부(성공회) 박상희 목사(기장)의 축도로 이어졌고, 김정호 목사(UMC)가 “다시 또 우물과는 사람들” (창세기 26:12-35)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어서 김충성 목사(제자회)가 ‘북미 에큐메니칼 평화운동의 역사’에 대하여, 김진양 목사(UMC)는 ‘북미 기독교 평화네트워크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진행된 총회에서는 정관과 창립선언문을 통과시켰고 초대 회장에 김정호 목사(UMC), 초대 사무총장에 조원태 목사(PCUSA)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창립 발기인 120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창립 선언문에서는 “그

동안 기독교인들로서 정의와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하나, 우리는 북과 남 정부가 이전의 평화통일 정책으로 돌아가 대화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미국과 기타 강대국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대화와 정책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교단의 벽을 넘어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제2차 총회는 내년 4월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기로 결정하였다. 기사 제공: 북미 기독교 평화 위원회



북미 기독교 평화 네트워크 (이하. 기평넷)가 5월 22일 워싱턴 디씨 소재 연합감리교 예배실에서 창립되었다. ©기평넷

# 가정의 달 SPECIAL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Ioniq 5 ONLY)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Convenience AWD**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 RWD**

**NEW 2024 HYUNDAI Ioniq 6 SE RWD**

\$10,000 Lease Cash Available

STEVE CHANG 213.235.6825 | PAUL KIM 714.331.3855 | MIKE LEE 714.914.8414 | JUSTIN KIL 213.999.3935 | CHARLEY JEONG 213.276.8959 | JAMES PARK 213.839.3332 | HARLEY KIM 949.433.1378

**NEW 2024 HYUNDAI Santa Fe Limited**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yundai.com**

**1-888-644-7114** |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파키스탄 무슬림들, '신성모독' 주장하며 기독교 공동체 공격



파키스탄 동부와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펀자브 주.

지난 25일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 지방에서 한 기독교 공동체가 무슬림 폭도의 공격을 받았다. 신성모독 혐의로 발생한 이 사건은 심각한 폭력 사태와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공개된 소셜미디어 영상에는 폭도가 피투성이가 된 남성을 둘러싼 모습과, 10대들이 가구를 부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파키스탄 현지 매체는 "이번 공격은 지역 성직자의 선동으로 일어났다. 사르고다시 무자히드 식민지의 폭도는 '한 기독교인 70세 남성이 꾸란의 사본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DW의 보고에 따르면, 폭도의 분노로 피해 남성의 소규모 신발 제조 공장이 불타다. 파키스탄 기독교인으로 신성모독죄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파라즈 페비즈(Faraz Pervaiz)는 X(구 트위터)에 여러 개의 영상을 공개하며 "파키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정당 TLP(Tehreek-e-Labbaik Pakistan)의 소속 폭도가 마자히드 콜로니 사르고다(Majaheed Colony Sargodha)의 기독교인들을 공격해 여러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 중 한 명이 꾸란을 모독했다고 비난한 뒤 수십 채의 집에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사리크 칸(Sariq Khan) 사르고다 경찰서장은 "최소 5명이 폭력 사태에서 구출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도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다"고 했다.

이자트 말히(Ijazt Malhi) 지역 경찰서

장은 성명을 통해 "상황은 마침내 통제됐다.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한 명이 구금된 상태이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이 기독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르고다 전역에 배치돼 있다"며 "경찰들의 적절한 조치에 감사드린다. 사르고다는 큰 비극을 면했다"고 했다.

그는 "2,000명 이상의 경찰관이 보안 임무를 맡아 더 이상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에는 집 밖에서 큰 불이 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가짜 영상이며 다친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어 "부상자의 한 친척은 '삼촌이 병원에서 위독한 상태에 있다. 가족은 무사하며, 병원은 삼촌을 볼 수 있게 해줬다'고 말했다"고 했다.

소수자권리행진(Minority Rights March)은 성명에서 "영상에는 한 지역 성직자의 선동으로 폭도가 70세 남성을 공격하는 모습과 그 남성의 집과 공장이 불타는 모습이 담겼다"면서 "당시 펀자브 경찰은 수동적인 관찰자였으며, 이는 폭력을 암묵적으로 승인했음을 나타낸다"고 비판했다. 펀자브 내무부 관계자인 누울 아민 멘갈(Noor-ul-Amin Mengal)은 "파키스탄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종교를 가장한 어떤 불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 나이지리아군, 여성과 어린이 등 보코하람 인질 수백명 구출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몇 년 간 인질로 잡혀 있던 보코하람 무장세력으로부터 군이 여성과 어린이 등 인질 수백명을 구출했다.

나이지리아군은 합동 작전을 통해 보코하람의 약명 높은 근거지인 삼비사 숲에서 포로 350명을 구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단체는 이 숲을 공격 기지로 삼았다. 육군 고위 장교인 켄 치그부(Ken Chigbu) 소장은 최근 보르노(Borno) 주 당국에 풀려난 인질들을 인도했다.

구조된 인질들은 어린이 209명, 여성 135명, 남성 6명이었으며 모두 지쳐 보였고 낫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감금 기간 동안 강제 결혼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유아를 데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출된 인질 중 한명인 하지라 우마라는 "항상 탈출하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탈출할 수 없었다. 탈출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고문을 받고 무기한 투옥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전 중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사망하고 임시 거처가 파괴되었다. 나이지리아군은 한때 카메룬과 니제르 국경을 따라 뻗어 있는 변화한 삼림 보호구역이었던 이 지역에서 수일 간 군사 작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풀려난 인질들은 보르노 주정부 청사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당국이 돌볼 예정이다. 나이지리아 지하드 반군인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에 이슬람 샤리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유엔 기구에 따르면, 극단주의 폭력사태로 인해 최소 3만5000명이 사망하고 210만 명이 난민이 됐다.

2014년 치복에서 여학생 276명을 납치한 이후 보코하람은 주로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북서부와 중부 지역의 나이지리아 학교에서 최소 1천4백명의 학생을 납치했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C)가 지적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 공동체도 보코하람 폭력사태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ACN(Aid to the Church in Need)의 최근 보고서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것 거부했다는 이유로 나이지리아에 소재한 학교에서 납치된 지 6년 후인 5월 14일 21세가 된 포로 레아 샤리부(Leah Sharibu)가 감금된 사건에 주목했다. 그녀가 풀려난 포로 350명 중 한 명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녀의 생일날, 샤리부의 가족과 가까운 목사는 나이지리아 정부와 국제 사회에 "헤아릴 수 없는 이상한 침묵을 끝내고 그녀의 석방을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기디언 및 펀미 파라말람 평화재단의 기디언 파라말람 회장은 "레아는 지금쯤 석방됐어야 했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샤리부는 2018년 2월 19일 요베주 담치여중학교 여학생 110명과 함께 납치됐다. 다른 여학생들은 모두 이슬람 테러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풀려났지만, 샤리부는 신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석방되지 않았다.

파라-말람 목사는 "나이지리아인들은 신앙을 초월하여 단결해 레아와 다른 포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며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의 박해는 모든 사람의 박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에 오전 11: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합법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물론인) 오전 8시  
3부예배(바자세대에)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2세)을 섬기며, 선교를 영감을 주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교차로)  
T. (213)386-2233

주일에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에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에 오후 2: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수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에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생애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 중앙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18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에 오전 11:00 김재연 담임목사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김재연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와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김재연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에 1부 오전 9:00 이수호 담임목사  
주일에 2부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서사라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러닝: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총동부 주일 오전 11:00 김창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교동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분당) 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교동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중교동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유초동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김상현 담임목사  
화요일기도회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진건호 담임목사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세(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인성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초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이항영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말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구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구제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삼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민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섬김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 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학교부)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혜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청년예배 EM 오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막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 美 UMC 대형교회 “교단 규정 변경됐지만 교회 시설 내 동성혼 안돼”



하이랜드파크 연합감리교회. ©Wikimedia Commons/Highland Park UMC

연합감리교회(UMC)에 소속된 미국의 한 대형교회는 교단이 최근 동성혼을 허용한다고 투표했지만 교회 소유지 내에서의 동성혼을 금지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진 텍사스 달라스 하이랜드파크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열린 UMC 총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에 대해 논평했다.

당시 총회 대의원들은 교단의 동성혼, 동성애자 안수 금지를 폐지하기로 투표했다. 이번 투표는 최근 몇 년간 교단 내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지도자들이 동성혼과 비독신 성소수자(LGBT) 안수에 대한 교단의 금지 조치 시행을 거부하면서 약 7천5백여개 보수 성향의 교회들이 UMC를 탈퇴한 후 이루어졌다.

이달 초 게시된 영상에서 하이파크 연합감리교회 폴 라스무센 목사는 “장정의 변경은 초대나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108년 동안 13명의 담임목사를 통해 하이랜드 파크는 우리 예배 시설 내 결혼식과 관련하여 기독교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와 이해를 항상 유지해 왔다”라며 “우리는 예배 장소에서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무센 목사는 “성직자들이 양심에 따라 지역 사회의 다른 장소에서 동성혼을 거행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항상 큰 텐트 중심 교회였

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면과 보수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존중하고 지지하면서도 항상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친구와 이웃에게 개방적이었다... 이제 처음으로 우리 성직자들은 만약 그들이 양심에 따라 선택한다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고 결혼식을 할 때 성직자들과 연결되고 묶여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교회의 젊은 남녀들을 섬기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했다.

동성혼을 한 목회자가 교회에 배정될 가능성에 대해 라스무센 목사는 “교회가 여전히 공식 채널을 통해 여기에 임명될 성직자를 결정하는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 성소수자(LGBTQ) 공동체의 사람들도 안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교회의 평신도인 여러분 모두는 계속해서 이 교회에 임명될 성직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랜드 파크 UMC가 소속된 UMC 북텍사스 연회의 루벤 산즈 주니어 감독은 “이 문제에 대해 회중들 사이의 다양한 견해를 기꺼이 용납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목회 서신을 통해 “교회 및 성직자와 협력하여 성직자의 은사와 재능이 교회와 선교 분야의 필요와 상황에 가장 잘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 아메리칸 아이돌 피날레곡 ‘하나님의 선하심’ ...500만명 동시시청



미국의 유명 가스펠 가수 시시 와이넨스와 로만 콜린스가 '아메리칸아이돌' 시즌 22의 피날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Goodness of God)'을 공연했다. ©American Idol 유튜브 캡처

미국 ABC 방송에서 19일에 방영된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22에서 가스펠 듀엣 공연이 2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날 피날레에서는 유명 가스펠 가수인 시시 와이넨스(CeCe Winans)와 올해 경연에서 탑 12위에 진출한 참가자 로만 콜린스(Roman Collins)의 듀엣 공연이 펼쳐졌다.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에서 열린 생중계 피날레 행사에서 가스펠 곡 “굿니스 오브 갓(Goodness of God)”을 성령강림절에 맞춰 선보였다.

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이 쇼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564만 명이 시청했다. 이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은 “프레이즈!(PRAISE!)”라는 자막과 기도하는 손 모양의 이모티콘을 포함하여 이 공연 영상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다. 아메리칸 아이돌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참가자들이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무대에서 기독교 음악을 선보

여 왔다. 콜린스도 그중 한 명이다. 콜린스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령강림절 주일에 미국과 판타지아(시즌 3 우승자) 앞에서 시시 와이넨스와 함께 공연한 것에 감사하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 영상은 이미 2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전에는 700만 조회수였다)”라며 “하나님, 당신은 정말 신실하십니다”라고 덧붙였다.

콜린스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다”며 “친구, 가족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항상 즐겁고 완전한 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콜린스의 앨범 “세임 가스펠 뉴 사운드(Same Gospel New Sound)”는 그가 아메리칸 아이돌에 출연 중이던 지난 3월에 발매되었다.

최종 20명의 결선 진출자들이 등장한 에피소드에서 콜린스는 가스펠 가수 마빈 샐(Marvin Sapp)이 부른 곡 “네버 워드 해브 메이드 잇(Never would Have Made It)”을 공연했다.

김유진 기자

# “부흥의 3가지 열쇠는 겸손 · 갈급함 · 기록함”

미국 남침례교회(SBC) 전 총회장이자 테네시주 멤피스 벨뷰침례교회 전 담임 스티브 게인스(Steve Gains) 목사가 ‘부흥’을 주제로 한 신간을 발표했다.

게인스 목사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신간 ‘부흥: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실 때’(Revival: When God Comes to Church)를 집필한 계기에 대해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 연구해 온 것이며 제 사역의 핵심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부흥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교회 중 한 곳의 문을 두드리시는 내용”이라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믿는다.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차단했다고 생각한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신다. 그분은 많은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보았기 때문에 이 글을 썼다”며 “40년 넘게 목회를 해 왔고, 2~3년 동안 가끔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이 부흥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CP가 “코로나19로 인해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예배를 실시간 스트리밍하기 시작한 교회들의 수가 급증했다. 실시간 예배의 증가가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예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그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분명한 임재 가운데 모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수 있다. 그분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쇼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믿는다. 내 생각에 우리는 딱 맞는 음악이 있고, 딱 맞는 옷 스타일이 있고, 딱 맞는

저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고 모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것은 잘 조직된 예배나 그와 유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배라고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찾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닌다”고 했다. 게인스 목사는 미국 역사에서 일어난 주요 부흥을 소개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휫필드와 같은 인물들이 문자 그대로 부흥 속에 살고 있었고, 때로 야외에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기 때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미국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믿는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였다. 지금 우리에게도 또 다른 부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도록 할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준비가 돼 있도록 뜻을 올릴 수 있다”라고 했다.

부흥의 3가지 열쇠를 ‘겸손, 갈급함, 기록함’으로 제시한 게인스 목사는 “미국교회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부족하다”면서, 그 중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겸손을 꼽았다. 그는 “우리 교회에 많은 자부심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남침례교인이다. 우리는 규모와 구원받은 사람 수 등을 너무 자랑하는 것 같다.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큰 것 중 하나라고 믿는다. 구약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과 계속 동행해야 한다고 말씀할 때, 신약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많은 것을 얻은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통주의, 형식주의, 광신주의, 자유주의, 율법주의를 부흥의 5대 적으로, 그 가운데 미국 교회의 부흥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소로 변화를 싫어하는 전통주의를 꼽았다. 강혜진 기자

## 100회 이상 체포된 中 ‘복음의 전사’, ‘불법 집회’ 혐의 추가



중국의 거리 전도자 첸웬셩. 그는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회개하고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적힌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파한다. ©첸웬셩

중국의 ‘복음의 전사’이며 전도자인 첸웬셩(Chen Wensheng)은 경찰서와 감옥이 낯설지 않다. 후난성 형양시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00번 이상 체포된 첸은, 재판 과정 없이 구금하는 행정조치로 130일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에 따르면, 중국의 이 ‘복음의 전사’는 현재 새로운 시련에 직면해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거리 전도자 첸웬셩이 지난해 9월 1일 전도 활동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보통은 과거에 종종 그랬던 것처럼 2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석방이 예정됐던 9월 18일, 당국자들은 첸에게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이라는 범죄 혐의를 추가해 그를 계속 감옥에 가뒀다”고 했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도 첸웬셩은 석방되지 않았다. 현숙 폴리 대표는 “첸은 지난 4월 18일, 방청석이 12개밖에 없는 후난

성의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첸의 86세 노모와 둘째 형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족과 친구들은 법정 출입을 금지당했고, 법원 주변 거리 전체가 보안 훈련을 구실로 봉쇄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법원 주변에 40명이 넘는 경찰과 30명의 공산당 보안요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재판은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런 종류의 재판에서는 종종 그렇듯이, 이번에도 최종 판결 내용은 법정에서 선고되지도 대중에게 공개되지도 않았다. 첸웬셩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줬지만, 첸은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스스로 자신을 변호했다. 첸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당하고 혹독한 형벌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는 시민 자격으로 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도자 첸웬셩은 법정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집회를 조직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적이 없으며 단지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숙 폴리 대표는 “첸웬셩은 ‘구세주께 영광,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글귀가 적힌 나무 십자가를 들고 전도했고, 행인들뿐 아니라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에게도 전도지를 나눠 줬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몇 년 전 첸은 마약 중독자였다. 그러나 첸은 복음을 듣고 마약 중독에서 풀려나 즉시 거리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첸은 15년 이상을 거리 설교자로 사역해 왔다. 첸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그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고 최근에 재판이 열리는 건물과 거리를 봉쇄한 사실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입증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가디언)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가미교회) 오전 11:00 영아부예배(만용교회)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사랑기도회 화-토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11:15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수요기도회 7:30PM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만용교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 오전 9:00 EM예배 (2부) 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월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일(만용교회)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5914 Riata St., Northridge, CA 91327. (818)833-5887

OC예배 오후 7:30 수요일(만용교회) 오전 8:00(200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kc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k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날예배 오전 11:00(교회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gounchurch.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능  
-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밥 오방떡,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 이단 예방, 신도 구출 및 회복 돕는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 오픈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 개소식이 5월21일 (화) 바이올라 대학교의 비즈니스빌딩에서 진행됐다. ©기독교일보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 개소식이 5월21일 (화) 오후 10시 30분에 미국 캘리포니아 라미라다 시에 위치한 바이올라 대학교의 비즈니스빌딩에서 개최됐다.

바이블 백신 센터는 2020년 한국 대전 도안 교회 담임목사인 양형주 목사에 의해 이단 및 사이비 종교에 대처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진리를 왜곡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혼란한 시대에, 교회가 바른 진리에 기초한 거룩한 저항력을 키우는 것을 돕는 단체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한국 바이블 백신 센터 원장 양형주 목사는 목회 초창기 시절 부임한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져 교회 를 떠나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신 천지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등 심각한 이단의 공격을 받는 상황을 경험했다면서, 그 당시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세미나의 이름이 "바이블 백신" 이었다고 소개했다. 감기 백신만 맞지 말고 성경 백신도 맞아야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취 지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 목 사는 "우리가 멀리하면 이단은 더욱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묘하게 다가와 성도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 이제 이단은 단순히 피할 문제가 아니라 목회에서 정면승부를 해야 할 영역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바이블 백신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다.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이블백신센터 사역을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라면서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장으로 함께 동역하게 된 에스라 김 목사를 소개했다.

에스라 김 목사는 하나님의교회 및 신천지 등 다양한 이단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팬데믹을 지나며 신천지가 많이 알려져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포교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인을 포함한 전세계 외국인 99%는 신천지가 뭔지,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자

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천지 성경공부 탈퇴자의 간증 및 신천지 신도 사이비에 대해서 연구하는 크리스찬 변증가의 스피치도 있었다.

먼저, 신천지 센터 성경공부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타일러 형제는 '헤이 비나! (Hey Vina)' 라고 하는 친구 만들기 앱을 통해 신천지 신도에 포교 되어 성경공부를 시작한 여자친구를 보면서, 자신도 함께 성경공부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수 개월 동안 성경공부에 참여하면서, 그는 점차 자신이 참여한 성경공부의 내용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급기야 어느 날 성경공부에서 "새요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여, 신천지와 이만희의 실체를 발견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그곳을 탈출하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타일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는데, "신천지는 그러한 크리스천의 갈급함을 자신이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잘 포장한다" 라고 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이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 간증한 시애틀 신천지 탈퇴자 크리스 형제는 데이트 앱을 통해서 여자친구를 만났고, 그 여자친구가 초대해 성경공부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모든 성경공부를 마쳤고, 신천지 신도가 되어 2년동안 신천지 안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앞사귀 (신천지 성경공부에서 진짜 학생들을 미혹하기 위해 가짜로 학생인 것 처럼 꾸며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신도들) 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첫 번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신천지 안에서 두 번째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신

천지가 자신과 여자친구를 헤어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 일들을 겪으며, 그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신천지의 실체를 깨달은 후 그곳을 탈퇴하게 되었다. 신천지 탈퇴 후, 크리스는 2023년에 미주 바이블 백신센터에서 진행한 "새로운 여정" 회복 교육에 4개월간 참여했다. 회복 교육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그는 "신천지 반증에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은 제 숨통을 틔어 주었고,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라고 간증했다.

마지막으로 이단 및 사이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크리스찬 변증가인 스티브 매튜스의 스피치가 있었다. 그는 "아시아 사이비들이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메시지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하나님의 교회(WMSCOG, 신천지 (Shincheonji), JMS, 일본의 창가학회 (Soka Gakkai International, 남묘호렌게교), 중국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동방번개 (The Church of Almighty God/Eastern Lightning), 필리핀의 그리스도의 교회 (Iglesia Ni Cristo, INC) 등이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룹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 하지만 당신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한 그룹 중 하나에 끌려가게 되면, 갑자기 이들 그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삶의 중심이 된다"며 "저는 이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바이블 백신 센터의 사명과 소명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다" 라고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에스라 김 목사는 이단 예방 세미나, 이단에 빠진 가족이나 친구의 구출, 탈퇴자 회복 등을 포함한 이단과 관련한 문의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 biblevc.org / biblevca@gmail.com/714-683-9894

## 새생명 오아시스, 붓으로 말씀쓰기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담임 김일형 목사)에서 6월 6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붓으로 말씀쓰기'가 시작된다.

교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붓으로 말씀을 적어가는 시간을 마련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붓글씨를 쓴다"고 이번 서예수업을 여는 취지를 전했다.

정통서예인 궁체, 판본체는 물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캘리그라피까지 기초부터 작가가 되기까지 지도한다.

오랜 경력과 지니고 있으며 지도 경험이 많은 로라 김 권사(현 문화사역부장, 전 서예협회장)가 지도한다. 준비물은 중간사이즈 붓, 먹



새생명오아시스교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서예교실을 운영한다. 로라 김 권사(맨 오른쪽, 문화사역부장, 전 서예협회장 역임)가 지도한다.

물, 종이(화선지), 깔개이며 문의는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문화사역부 (323-541-5603)로 하면 된다.

문방사우는 호바트와 하버드 사

이, 8가에 위치한 탑 아트 스튜디오 (Top Art Supplies, 213-382-8229, 3447 W. 8th St. LA CA 90005)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붓으로 말씀쓰기**  
궁체, 판본체, 캘리그라피

초보자부터 작가가 되기까지  
개강: 2024. 6. 6. (목)

매주 목요일 10:00~12:00  
문의: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문화사역부  
(323) 541-5603

■ 센트럴 신학단상

### ‘옴조림’ 형식의 성경 읽기가 주는 교육학적 의미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초대 교회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신학적 접근과 교육적 방법론을 통합하여 교회의 필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기독교 교육의 주된 목적은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교리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중세 기독교 교육은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을 전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교육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인적 접근, 사회적 참여, 그리고 생태적 책임감 등의 요소를 통합한 현대 기독교 교육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현대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며 궁극적 목적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고찰은 ‘변혁(transformation)’과 ‘전수(transmission)’라는 신앙 교육의 두 가지 핵심적 측면으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요약하도록 이끈다. 이 두 교육적 목적은 기독교 교육이 신앙 지식의 전달과 전통의 계승을 넘어 인간과 사회의 변혁으로 신앙의 내면화, 즉 삶을 변화시키고 유지하는 근본적인 과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그러므로 교회와 교육 지도자들은 이 두 요소가 서로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임을 인식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러한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경험과 감정을 통한 동기 부여에 집중하는 현대 교육학적 트렌드에 따라 교회가 점점 더 변혁(transformation)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개인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전수(transmission)의 방식—즉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교회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신앙적 도전에 직면하게 한다:

- 1. 교리적 깊이의 부족
- 2. 감정적 의존성
- 3. 주관적 신앙 경험의 과도한 강조

특히, 주관적 신앙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교육이 공동체적 신앙 이해와 실천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이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을 과도하게 반영하면 성경의 교훈을 왜곡하고, 직통계시와 극단적 신비적 경험주의와 같은 신학적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변혁(Transformation)과

전수(Transmission)라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분석은 기독교 교육 목적의 불균형 현상 속에서 신앙 변혁을 위해서 교회가 신앙 전수의 교육 방식을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요청한다. 이 요청에 본 저자는 ‘옴조림’ 형식의 ‘성경 읽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개신교 신학자인 제임스 팩커(J.I. Packer)는 그의 저서 “Knowing God”에서 신앙생활의 중심에 성경 읽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학자인 N.T. 라이트(N.T. Wright)도 성경 읽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도록 하고 개인의 신앙 체험을 교정 시켜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의 저서 “Simply Christian”에서 강조했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변혁 과정은 신앙 전수의 방식인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깊이 알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적 관점을 실현하기 위해 본 저자는 여호수아 1:8-9절 말씀에 근거하여 ‘옴조림’형식의 교육 방법을 제안한다. 여호수아 1:8-9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변혁)에 앞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여기서 “묵상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hagah)’라는 동사는 ‘깊이 생각하다,’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그리고 ‘중얼거리다’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묵상하여”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지적 또는 사교적 활동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QT와 같은 묵상과 논리적 사고를 활용한 귀납적 성경 읽기를 신앙 교육 방식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묵상하여”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와 함께 문맥 속에서 번역한다면, “묵상하여”는 ‘반복해서 입으로 성경을 중얼거리다’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에서 옴조림 방식의 성경 읽기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옴조림은 최근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몸의 능동적인 역할을 논하는 ‘체화된 인지’ 이론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사람은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존재로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관점이 옴조림에 드러난다. 옴조림은 사람이 영과 육의 조화 속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면화 과정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다.

서장원 교수(센트럴신학대학원 디플로마 학과장)

■ 강태광의 신앙 명시 산책 월드쉐어 USA

### 당신이 문밖에 -박화목

당신이 문밖에 (박화목)

당신이 문밖에 와서 두드렸어도  
내가 미처 듣지를 못하였습니까?

당신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렀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하였습니까?

당신이 흰 눈을 밝고 창 바깥을 지나갔어도  
내가 미처 못 보았습니까?

당신이 나를 찾아서 손짓하는 흰 손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까?

아 서러운 나의 이목(耳目)이여!  
마음일랑 안타까이, 당신을  
찾아서 해매길 더하였거늘……

이제 당신은 정녕 문 열고 들어서라  
그리고 나의 앞에 고운 얼굴을 보이라

밤과 밤을 이어간 외로이 그치어  
나로 하여금 그대 수정(水晶)같은 이마  
에 입맞추기 위하여…….

이 시는 시인이자 아동 문학가 박화목 선생의 <당신이 문밖에>라는 시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여러 신학교에서 수학한 박화목 시인은 평생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박화목 시인이 여러 신학교에서 수학한 기록은 남아 있지만, 목사 안수에 대한 기록도, 목사라는 기록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가 안수를 받은 목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기독교 기관에서 일했고 신학교 교수도 지냈습니다. 박화목 시인은 여러 편의 신앙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는 시인이 영적으로 둔감한 자신을 책망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둔감으로 주님과 만남이 어려운 자신을 의심합니다. 본 시에는 네 개의 의문문이 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부족한 행동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아쉬움 가득한 자신의 삶과 행동을 주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발걸음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계속되는 것은 시인의 열망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어찌하건 주님과 가까이하고 싶습니다. 민감해서 주님이 문밖에 두드리면 달려나가 문을 열어 주고 싶고,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면 주님께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손짓을 반드시 발견하고 싶습니다.

아 서러운 나의 이목(耳目)이여/ 마음일랑 안타까이, 당신을//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적 둔감을 탄식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눈과 귀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과 귀가 너무 둔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려 안타깝게도 만나지 못합니다. 시인은 이런 안타까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 삶을 자성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길 구합니다. 자신의 영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와 나타나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주님을 만나겠다고 선언합니다.

박화목은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입니다. 그는 아동 문학가로 많은 동시와 동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박화목은 시인이기 보다는 아동 문학가로 더 알려졌습니다. 1941년 《아이생활》에 동시 <피라미드>와 <겨울밤>이 추천되면서부터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보리밭> <과수원길>등 서정성 짙은 시와 동시를 다수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 <보리밭>은 가곡으로, 또 <과수원길>은 동요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 중에 두 노래를 불러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박화목은 황해도 황주에서 출생하였으며 만주로 건너가 봉천 신학교를 수학했고, 평양 신학교와 한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여러 신학교에서 공부했지만 목회자 사역자가 아닌 시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시집으로 <시인과 산양>, <주의 곁에서>등이 있으며, <그대 내 마음 창가에> <천사와의 씨름> <환상의 성지순례>, 동시집 <초롱불> <꽃 이파리가 된 나비>, 동화집 <아기별과 개똥벌레> <인형의 눈물> 등과 저서 <아동문학개론>을 남겼습니다.



강태광 목사(WorldShare USA 대표, 시인)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뒹누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한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01

**눈 건강**  
눈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께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 건강한 삶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01

**간 건강**  
간건강 가득 밀크씨슬  
\$14.90 ▶ **\$11.90**



02

**간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03

**간 건강**  
CMG 간N 밀크씨슬  
\$27.90 ▶ **\$23.90**



04

**간 건강**  
간에는 밀크씨슬  
\$21.90 ▶ **\$18.90**



05

**위 건강**  
위건강  
\$18.90 ▶ **\$15.90**



06

**신경을 위한 건강제**  
신경엔 마그네슘  
\$19.90 ▶ **\$16.90**



07

**항산화엔 비타민 D**  
비타민D 4000IU  
\$13.90 ▶ **\$11.90**



08

**항산화엔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D 가득  
\$15.90 ▶ **\$12.90**



09

**항산화엔 비타민 D**  
CMG 항산화 비타민 D  
\$18.90 ▶ **\$15.90**



10

**피부 보습**  
수분가득 히알루론산  
\$19.90 ▶ **\$15.90**



11

**관절 건강**  
CMG 프리미엄 보스웰리아  
\$17.90 ▶ **\$14.90**



12

**홍삼** 10ml x 30  
한국 홍삼 퓨어 데일리 스틱  
\$100.00 ▶ **\$89.00**



**J1 MART**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 (213) 278-3250



SCAN ME

진유철 칼럼

고임은 썩고 흐름은 생명을 만든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구약의 다니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앗시리아를 정복하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이긴 느브갓네살 왕은 당대 세계최대의 도시 바벨론과 세계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을 건설했습니다. 인간역사에서 보아도 용감한 영웅이며 지략이 있어 최고의 제국을 다스리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손아

래 있는 왕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느브갓네살 왕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정확히 해석해 주십니다. 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 제국이고, 그 이후 은으로 된 메대와 페르시아, 놋으로 된 헬라 그리스, 쇠로 된 로마와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시대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모든 제국을 박살내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깨달은 느브갓네살 왕은 어린 다니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만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Not I But Christ와 같은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0년 쯤 지나면서 자기를 위한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

혜를 받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만하다가 그만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째 하늘을 경험한 바울이 자고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교만하지 않고 홀연히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생명의 흐름'을 만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금 수저 흠 수저가 있고, 건강하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 모두가 똑같으면 '흐름'은 없고 '고임'만 생길 뿐입니다. 그리고 '고임'은 곧 '썩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에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강한 태풍으로 녹조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흐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더 가

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있기 마련인데, '생명의 흐름'을 통해 불공평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기와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죽은 사해 바다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성전에서 나온 "생수의 강"이 흘러서 죽은 사해 바다를 살립니다. 물고기가 가득해지고 주변이 푸르고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질이나 흐르는 은사와 봉사에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희생하며 손해보고 섬기는 것은 억울한 일이나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이 땅이 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흐르게 하고, 기도가 흐르게 하고, 사랑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서 나와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롬!

강준민 칼럼

꾸준한 독서는 기회로 가는 관문(關門)입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계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과 함께 저는 날마다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제게 소중한 습관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미래를 창조하고, 나쁜 습관은 나쁜 미래를 낳습니다. 좋은 습관은 형성하기가 어렵고, 좋은 습관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됩니다. 또한 나쁜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들면, 습관이 우리 미래를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반복의 횟수를 늘려가면서 좋은 습관이 형성됩니다. 저는 반복의 힘을 믿는 사람입

니다. 탁월함에 이르는 길은 반복에 있습니다. 반복의 횟수를 늘려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복의 횟수를 늘려가는 중에 좋은 습관이 형성됩니다. 반복을 통해 지식이 축적됩니다. 지혜가 축적됩니다.

작은 것이 반복되면 축적됩니다. 비밀은 작은 것 속에 있습니다. 작은 것이 축적될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축적은 돌파를 낳습니다. 돌파란 막힌 것을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나면 다른 차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은 흐르다가 막히면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중에 물이 점점 축적되면 어느 순간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나면 장애물을 극복하게 됩니다. 돌파는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막힌 것을 뚫어버립니다. 닫힌 길을 열어버립니다. 닫힌 문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속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형성했습니다. 한 번의 독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독서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한 두 권 책을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책을 읽는 것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애덤 그랜트가 "독서는 기회로 가는 관문(關門)이다. 독서는 배움을 계속할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관문(關門)이

란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의 도움을 받아 조금 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관문이란 어떤 곳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길목을 의미합니다. 관문이란 돌파하거나 통과하기 어려운 과정이나 난관을 의미합니다." 기회를 만나고 기회를 붙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 독서입니다.

애덤 그랜트가 독서는 기회로 가는 관문이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기회가 무엇일까요? 그 기회는 배움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움을 계속하는 것은 한 순간의 성공이나 성취보다 더 소중합니다. 사람은 배움을 통해 잠재력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사람은 배움을 통해 잠재력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움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배우고, 꾸준히 배우고, 어디서나 배웁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배우고 모든 환경을 통해 배웁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위기를 통해 배웁니다. 배움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에서 이기지만 성장하지 못합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성숙과 원숙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엡 4:13).

승리가 성장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승리와 성공을 맞본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승리나 성공에 도취됩니다. 자신의 과거의

승리와 성공에 집착합니다. 그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장에 관심을 갖기보다 승리와 성공에 집착할 때 잘못된 방법과 술수를 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나 책망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느 순간에 몰락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왜 중요할까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사람은 더욱 겸손하게 됩니다. 더욱 신중하게 됩니다. 더욱 깨어 있게 됩니다. 더욱 유연해집니다. 더욱 잘 배우게 됩니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훈련입니다. 제시 이츨러(Jesse Itzler)는 "훈련은 쉽다. 지속적인 꾸준한 훈련이 어려울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 차근차근 반복될 때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탁월함에 이르게 됩니다. 꾸준함이 기회를 만듭니다. 꾸준함을 통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꾸준함을 통해 신용(信用)을 쌓게 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신용입니다. 돈을 쌓는 것보다 신용을 쌓으십시오. 장기적으로 볼 때 신용을 쌓는 것이 돈을 쌓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신용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을 성실하고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이 얻는 상입니다. 스마트 폰을 검색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십시오. 꾸준한 독서가 기회의 관문입니다.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ACSI, SACS 인증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CSI, SACS, ATS 인증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오디오 성경**

# “단 30분의 녹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전교인 성경통독 가능



**60DAY 신약통독**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와 함께 60일 신약듣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호응 속에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일 성경통독  
선한목자교회



90일 성경통독  
은누리교회



100일 신약통독  
중앙성결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지구촌교회

## AI 오디오 성경 특별 프로모션

**프리미엄 패키지 : 교회(담임목사)**

**\$6,600 ▶ \$5,500**

- 오디오 성경 음원(wav,mp3), 고급 USB 패키지
- 바이블리 앱 업로드 \$교인 무료 이용
- 교회 맞춤형 바이블리 통독 서비스(음원편집 & 배너광고)
  - 성경 66권 기준(권당 \$83)
  - 출석 교인 **300명 이하 : \$3,500(권당 약 \$53)**

**\* 담임목사 + 원로목사 패키지**  
- \$5,000 (담임목회자) + \$3,000 (원로목회자)  
- 교인의 데이터로 제작 시 별도 논의 필요

**베이직 : 개인(일반성도 및 부목회자)**

**\$3,300 ▶ \$2,500**

단 한번의 녹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가족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 오디오 성경 음원(wav, mp3) 제공
  - 바이블리 앱 개인 성경 업로드(향후 예정)
  - 성경 66권 기준 권당(약 \$35)

개인 오디오 성경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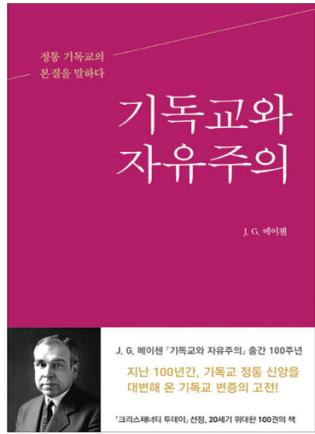
기독교일보

www.chdaily.com  
T:(213)739-0403 chdailya@gmail.com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다른 종교다

# 기독교 신앙,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이 필요 없다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있다. 역사적으로 적실한 내용을 탁월하게 담고 있는 책,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의미 있고 도전을 주는 책. 메이첸(John Gresham Machen, 1881-1937)의 <기독교와 자유주의>가 그런 책 중 하나다.

웨인 그루웬은 추천사에서 “나는 모든 신학 입문 강지에서 이 책을 필독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만든 계기, 자유주의 신학과 논쟁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구축한 책이 바로 <기독교와 자유주의>이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옷을 입고 교회와 신학교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메이첸은 이 책을 통해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라 또 다른 종교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렇게 과격한 발언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할 것이 분명하지만, 누구든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를 조화롭게 수용하려고 애쓴다면 메이첸이 구분한 둘의 명백한 차이 앞에 결국 부딪히게 될 것이다.

J.G. 메이첸은 정통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나 존스홉킨스대학과 프린스턴신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 괴팅겐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 크게 흔들리다가 정통 신학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자유주의 신학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알리고 경고했다. 교수로 있던 프린스턴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정복당하자,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설립했다.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리더가 미국장로교회를 주도하자, 정통장로교회를 설립한 것이다.

한마디로 메이첸의 삶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벗어나 정통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려는 삶이었고, 이 책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왜 그토록 그가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학교와 교단을

설립하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한다. 한 가지 분명히 밝힐 것은 메이첸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한 것이 아니라 교리를 비판하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모든 사람을 신앙이 없고 구원도 없으며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혹은 마치 기독교의 배교자처럼 취급한 것 아니냐고 메이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런 식의 비판은 메이첸의 책을 읽어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는 매우 친절하고 정중하게 문제를 다룬다. 예리하면서도 열정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을 발견할 때마다 사람이 만든 이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그가 얼마나 사모하고 또 지켜내기 원하는지 발견할 따름이다.

메이첸이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 기독교 신학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주제는 하나님(신론), 인간(인간론), 성경(성경론), 그리스도(기독교론), 구원(구원론), 교회(교회론) 등이다. 각각 주요한 쟁점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기독교가 하나의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과 교리가 일치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이 주장하는 역사적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부정하거나 교정하고, 그래도 교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참 기독교 신앙은 교리와 사건이 별개가 될 수 없다고 메이첸은 강력하게 호소한다.

자유주의는 여러 이름으로 정통 학문에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새로운 관점에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다. 이성과 감정을 앞세우고 새롭게 각색한 진리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메이첸의 말처럼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낼 뿐이다. 무



©픽사베이

서운 현실은 자유주의 신학이 주류 기독교 내부에 너무 많이 침투했고 대중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강단뿐 아니라 성도의 일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 철학과 지혜를 추앙하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밝혔다.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이 필요 없다. 과학적 비평과 신박한 패러다임을 이용할 필요도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사람

이 만든 온갖 이론과 견해와 관점과 교리는 시간이 지나면 폐기될 것이지만,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의 가슴에 남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성경의 증언대로 살아 계신다. 나는 메이첸의 편에 서기 원한다. 그가 선택한 진영이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라는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통해 오랜 세월 역사하신 것처럼, 저자처럼 방황하는 수많은 독자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익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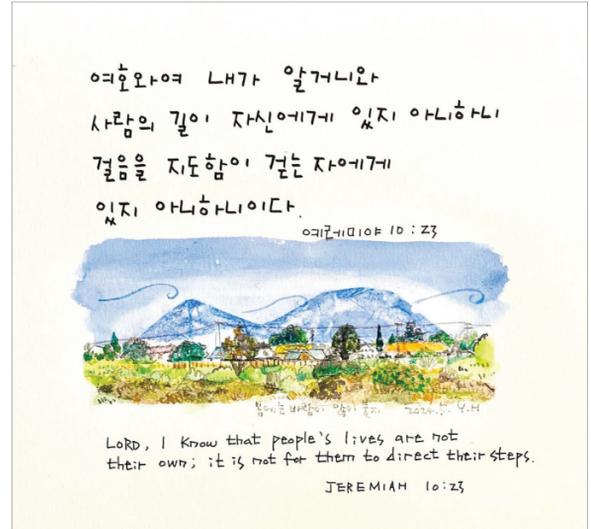
## 기독교와 자유주의

J. G. 메이첸 | 황영철 역 |  
복있는사람 | 371쪽 |  
19,000원

이 책은 1920년대 초, 미국장로교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신학 논쟁'의 와중에 탄생했다. 메이첸은 이 책에서 당대의 주도적인 흐름이던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며, 성경적인 신앙이란 사실과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에 관한 두 입장을 명석하게 대조하여 복음적 신앙을 변증해 나가면서, 시류에 적합한 신학을 추구했던 자유주의 신학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 66권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구속적 종교'로서의 기독교 본질을 세밀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생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부목사 청빙

캘리포니아 LA 동부 Chino Hills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실 Full-time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www.sunhanchurch.com](http://www.sunhanchurch.com)

1. 지원 자격
  - 1) ECO (복음연합장로교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ww.eco-pres.org) 교단에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 3) 현 거주지가 미국이고,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필요시 종교비자 지원 가능)
  - 4) 장년부 사역 유경험자
2. 모집분야
  - 1) 풀타임 부목사 (1명)
3. 제출서류 (PDF file로 제출요함)
  - 1)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미국에서의 자신의 법적 신분 명시(예: 영주권자)
  - 2) 자기소개서 1부 (신앙고백 및 간증문, 사역 및 일반 경력, 은사, 가족소개 및 사진)
  - 3) 최근 1년 이내 설교 영상(2편): 유튜브 링크
  - 4) 추천인 2명 이름과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 추천인 1명은 현(최근) 사역교회 담임목사, 다른 추천인 1명은 이전 사역교회 담임목사이어야 함) -추천서는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추천인에게 본 교회에서 직접 연락함.
  - 5) 신학대학원(M.Div) 졸업 및 성적증명서, 대학교와 대학원(해당되는 분)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4. 지원 및 문의
  - 1) 이메일 [resume@sunhanchurch.com](mailto:resume@sunhanchurch.com)로 문의 및 지원해 주세요. 이메일로만 문의/접수를 받습니다.
  - 2) 접수마감 : 2024년 6월 5일까지(청빙 완료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4)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5) 최종후보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선한목자교회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박두칠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즈니+ <삼식이 삼촌> (제1화)

# 송강호(박두칠)와 김산(변요한) 캐릭터의 결정적 차이



1950년대, 풍운의 시대에 활약했던 아심만만한 정치강패의 일화를 다룬 드라마, <삼식이 삼촌>

**박두칠, 당대에 있을 만한 인물  
김산 캐릭터, 2000년대 감성 인물  
사회주의 혁명적 역사관 반영돼  
부조리와 불평등의 프로파간다**

◆인물과 역사적 정황: 시대 정황을 크게 벗어난 이질적 인물상 문제

<삼식이 삼촌>은 1950년대 후반, 부와 정치권력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심찬 정치강패의 일화를 다룬다.

이 드라마는 지난 5월 15일부터 디즈니+를 통해 현재까지 초반 다섯 편이 공개된 상황이다. 주연으로 등장하는 정치강패 박두칠 역에 배우 송강호, 육사 출신 엘리트 내무부 공무원 김산 역으로 배우 변요한이 캐스팅됐다.

<삼식이 삼촌> 서사는 주제 및 시대배경 면에서 2003년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야인시대>와 겹치는 감이 있다. 자유당, 민주당, 진보당의 정치 3파전과 각 세력에 붙은 정치강패, 군인, 공무원들의 암투가 주된 내용을 이룬다. 박두칠은 원래 정치인들의 해설사 노릇을 하면서 밑에 여러 건달 세력들을 거느린 이른바 암투가의 흑막이다. 출신 성분이 미천한 탓에 기득권층(정치인과 기업가들)에게 천시당하지만, 야랑곳하지 않고 권력의 중심부로 올라가겠다는 커다란 야심을 품은 인물이다.

그는 모략과 편법을 동원해 필요한 인재들을 포섭하고 성공한 사업가로서 이미지를 구축한다. 미군 군수물자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나 폐품을 암시장에 유통시켜 막대한 부를 얻고, 이 자금을 활용해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엘리트들을 포섭한다. 그리고 정권에 큰 불만을 품은 소장파 군부 인사들을 회유해 쿠데타까지 기획하는 대담한 간웅이다. 작중 박두칠이나

김산 모두 역사적으로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이다. 단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 정황은 실제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삼는다. 1950년대 중후반은 전쟁의 상흔이 걷히지 않은, 빈곤과 안보 불안, 정쟁과 좌우 이념 대립이 뒤죽박죽돼 사람들의 삶을 괴롭게 하던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였다.

정치와 경제 양면 모두 발전을 위한 기초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아 모든 일들이 몇몇 엘리트들에 의해 좌우되던 시절. 이것이 <삼식이 삼촌>이 그려내는 1950년대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는 조선 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자주와 자치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 민중의 안타까운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삼식이 삼촌> 전반부는 크게 두 사람의 주인공을 내세운다. 한 사람은 야심을 찬 간웅 박두칠이고, 한 사람은 이상을 앞세우는 엘리트 관료 김산이다. 두 사람 가운데 작품 내부 갈등을 깊어지게 만드는 인물은 사실 박두칠이 아니라 김산이다. 박두칠은 정권 전복 모략의 흑막으로 등장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부와 권력을 노리는 암투가의 인물로서 충분히 납득될 만한 행동양식을 보여 준다.

오히려 이 작품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인물, 당시 시대배경에 녹아들지 못하는 인물은 김산이다. 김산은 이질적 인물이다. 당대 권력자들 앞에서 소신을 굽힐 줄 모르고, 정권 수뇌부는 생각해내지 못한 탁월한 조국 근대화 및 경제개발 계획을 구상해내며, 그러면서도 자신이 불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선을 긋는, 몽상가와 혁명가의 모습이 뒤섞인 엘리트로 그려진다.

◆혁명과 역사적 정황: 혁명 전위의 영웅적 면모를 앞세우는 프로파간다

인권 개념도 희박하고 권위주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1950

년대에 2000년대의 인권 및 민주주의 감성을 표현하는 김산 캐릭터는 '진보적' 지식인상을 동경하는 이들에게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역사적 개연성 관점으로 보면 어색하기 그지없다. 당시에 그 정도 소신과 신념을 보이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재력과 권력, 출신성분이 뒷받침돼야 했다.

박두칠의 캐릭터는 바로 이 점에서 돋보인다. 그는 당시 사회 기득권층이 자신 같은 반건달 출신에게 권력을 나눠 줄 리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속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뒤로 막대한 부와 무력, 그리고 인재를 모으는 것이다.

이런 힘의 뒷받침 없이 권력 수뇌부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김산의 모습은 1950년대 현실에서 실제 찾아보기 거의 불가능한 인물이다.

김산 캐릭터가 허구적인 데는 역사적 이유도 있다. 김산이 작중 그토록 성사시키려 하는 국가주도 경제개발 계획은 실은 말단 내무부 관료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해 수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삼식이 삼촌>은 김산이라는 진보적 혁명가, 진보적 영웅을 그려내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민족과 민중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언더독 캐릭터를 창조해낸다.

이는 진보정치 진영의 사회주의 역사관을 반영한 캐릭터 설정이다. 마르크스로부터 레닌과 스탈린까지, 사회주의 혁명이념을 창안하고 실행한 이들은 혁명 전위(前衛, vanguard)라는 개념을 중시했다. 혁명 전위란 자본주의 전복을 위한 폭력 혁명을 앞장서 지휘하는 이들, 즉 사회주의 지식인들로 이루어진 공산당 핵심 구성원들을 일컫는 말이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체계화된 사회주의 혁명이념은 이 혁명 전위가 과도기적이기는 해도 혁명 성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계층이라고 가르친다.

당시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은 커다란 현실적 제약에 부딪혀 있었다. 그들은 사회주의 운동을 지지하거나 직접 혁명에 동참하던 이들 대다수가 지식도 재산도 사회적 영향력도 없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대부분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사회주의 혁명은 혁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인류 정치경제사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성사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엘리트 지식인 계층은 대부분 기득권층에 속해 있어(혹은 기득권층에 속하기 위해), 사회주의 운동에 잘 동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은 극소수 이념 엘리트가 대다수의 교육받지 못한 혁명 후위(rearguard)를 선도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혁명이념에 따르면, 혁명 전위는 혁명 성공 이후 원래 사라져야 하는 계층이었다. 혁명 후위로 따라온 민중들이 투철한 사회주의 이념 교육을 받고 생산수단을 나눠받게 되면, 전위와 후위 구별 없이 모두 평등하고 생존을 넉넉히 보장받는 공산주의 낙원이 도래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이상이었다.

그러나 혁명 현실에서 이 전위 계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산국가 독재자와 과두 기득권으로 남게 됐다. 충분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뒷받침된 다음, 이 경제성장의 결실을 혁명을 통해 모든 민중이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래 이상이었던, 이 이상을 바라보고 혁명에 뛰어든 대다수 민중의 기대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혁명 전위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이 잘 묘사하고 있듯, 혁명의 과실은 중국에 소수 사회주의 엘리트들에 의해 독점당했고, 민중은 새로운 형태의 압제 하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런 배신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술책을 썼다. 하나는 혁명 영웅들을 앞세우는 것이다. 혁명 전위에 든 이들이 누리는 기득권은 혁명에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에 대한 당연한 포상임을 강조하면서 다수의 사회주의 민중 역시 그러한 헌신을 하면 포상을 받으리라는 기대감을 준다.

둘째는 아직 외부에 남아있는 자본주의 열강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혁명은 완수되지 않았고 따라서 혁명 전위의 권력독점은 이론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삼식이 삼촌>의 김산은 바로 이런 혁명 전위의 일원이 가져야 할 영웅의 특성들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기득권 압제에 굴하지 않고, 항상 민족과 평등을 외치며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는 혁명가 이미지가 김산 캐릭터에 덧씌워져 있다.

이로써 <삼식이 삼촌>은 기득권층뿐 아니라 무수한 노동자, 농민, 일반 서민들이 함께 노력해 이룩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공을 일부 '진보적' 영웅, 엘리트들에게 돌리는 부조리와 불평등의 프로파간다를 전개한다.

보수정치 진영이 산업화 시대 정치지도자들과 소수의 재벌 총수들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 영웅으로 옹립하는 동안, 진보정치 진영은 일부 노동운동가와 진보진영 야권 지도자들을 대한민국 민주화와 선진화의 영웅으로 옹립한다.

양측 모두 전근대적인 엘리트주의 역사관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논한다. <삼식이 삼촌>의 역사관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 솔라!!** \*\*\* 전기세 50~90% 절감 \*\*\*

B T S SOLAR DESIGN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Lic#854389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세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 “우리 모두는 선교사” 제50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 열려



제50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 개최예배가 29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됐다.

제50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가 ‘오직 은혜로 부흥의 파도를 타자’라는 주제로 전 세계 65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부터 31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에서 열린다.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이사장

이영훈 목사)가 주최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국이 주관하는 이 선교대회는 올해 50주년을 기념해 ‘선교 전시회’, ‘선교사 수련회’, ‘선교사와 함께하는 8시간 미스바 밤샘 회개기도성회’, ‘선교사 자녀 캠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

행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1974년 5월 제1회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한 후 이듬해 4월 순복음세계선교회를 정식 발족시키며 본격적인 해외선교의 문을 열었다. 67개국에 67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11개의 순복음 해외총회와 산하에

1,264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선교대회 첫날인 29일에는 개최예배가 진행됐다. 성태환 장로(선교분과위원장)의 개최선언 후 정병성 선교사(순복음아프리카총회 총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고, 서상진 선교사(순복음대만총회 총회장)의 성경봉독과 베데스다찬양대의 찬양 후 이영훈 목사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사 6:5-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처음 선교사로 나갈 때 떨리는 감격 가운데 나가셨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해야 한다. 선교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한다. 그럼 용서하신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다. 그렇게 다시 성령의 불을 받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만 250만 명의 다문화인들이 있다. 그리고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도 있다. 해외로 나간 이들만 선교사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며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는 이 시

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용복 선교사(순복음유럽총회 총회장)의 인도로 선교지의 부흥과 복음화 등을 위한 통성기도 순서를 가졌고, 서정완 선교사(미국 하와이)가 선교사역을 보고했다. 이후 정동균 목사(기하성 총회장)와 이태근 목사(여의도순복음은혜교회 담임)가 축사를, 엄진용 목사(기하성 총무)가 격려사를 전했다.

정동균 목사는 “선교는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오늘 설교가 말씀이 감동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목하고 계시리라 믿는다”며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께서 다시 영적으로 충전하셔서 선교지로 돌아가 큰 열매를 맺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태근 목사는 “과거엔 초라했지만 지금은 뿌듯한 씨앗이 열매를 맺어 선교가 크게 확정되었다”며 “계신 자리에서 강인하고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 선교사님들이 다 되시길 바란다”고 했고, 엄진용 목사는 “50주년은 성경에서 희년을 의미한다. 희년엔 회복의 은혜가 있다. 선교사님들 모두 회복되는 50주년 선교대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신학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신학〉은 주로 그리스 철학 작품, 유대의 지혜 및 묵시 문학과 필론(Philo)의 작품을 포함하며, 이처럼 다양한 문헌에 적을 둔 풍성한 유대-헬라적 전통의 지적 세계에서, 바울이 내러티브를 통해 펼치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이해를 목표로 한다.

저자 이상명 총장(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은 이 책에서 바울의 내러티브 세계를 우주적 캔버스(cosmic canvas)에 투영된 한 편의 드라마로 보아, 드라마 구성의 3대 요소인, 플롯인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무대인 시간과 공간, 다양한 등장인물들/배우들을 세밀하게 스케치한다.

바울 사상의 두 축, 우주론적 통찰과 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전개하는 4막의 드라마가 지상과 천상을 포함하는

다층적인 우주적 캔버스에 투사된다. 그 4막이란 무율법 시대(1막), 율법 시대(2막),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대 사이의 간막(그리스도의 현현과 바울의 회심)과 교회 시대(3막)와 파루시아/재림(4막)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본서는 율법과 그리스도를 중심 등장인물로 한 바울의 우주적 구원 드라마에 대한 심층적 연구다.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그 안에 길을 낸 이방인의 사도다. 당대 그레코-로마의 지적인 교육적 전통에서 성장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적 모체로부터 가져와 보다 넓은 그레코-로마 세계에 전했다. 바울 서신은 유대-헬라적 사상의 다양한 조류를 보여준다. 이 같은 다양한 사상적 지류는 바울의 사상계를 적시고 그 모양을 윤택하게 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연구는 바울 학계

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인 율법과 그것이 그리스도와 갖는 관계에 대한 바울의 견해에 집중할 것이다. 바울 사상이 어떠한 측면도 율법에 대해 그가 갖는 견해의 일관성만큼 뜨거운 논쟁 대상은 없다. 이 까다로운 문제는 바울 사상의 이면에 있는 다양한 유대-헬라적 전통을 고려하고 바울의 내러티브 세계에서 펼쳐지는 인간 구원의 신적 드라마를 통전적 관점으로 탐색할 때에만 적절하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율법과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다룬 이전 연구는 바울 신학에 미친 그레코-로마 사상의 우주론적이고 인간학적인 차원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채, 주로 유대적 전통의 배경에서 그의 사상을 다룬 측면이 강하다. 바울 신학, 특히 그의 율법관에 미친 그레코-로마의 사상적 배경과 영향이 적절

하게 다루지지 않았다. 이 점은 바울 신학 이면에 있는 전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를 노정한다. 이전 연구와 달리 필자의 연구는 주로 그리스 철학 작품, 유대의 지혜 및 묵시 문학과 필론의 작품을 포함하며 이처럼 다양한 문헌에 적을 둔 풍성한 유대-헬라적 전통의 지적 세계에서 바울이 내러티브를 통해 펼치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헬라화된 유대인 바울이 유대 전통은 물론 그레코-로마 전통의 영향 아래에서 그의 서신을 기록했다는 전제와 함께 출발한다. 당대 이방 세계 지성에 호소하기 위해 바울은 구약성서 이야기를 헬라 세계의 일반적인 지적 조망에 맞추어 조정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구원 드라마를 들려주기 위해 유대-헬라적 전통의 다양한 요소들을 창의적으로 수용했다. 이 연구의 범위는 ‘모나드’로서의 하나님, 지구 중심적 우주로서의 우주체,



도서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반인반신으로서의 영웅, 일원론과 이원론, 몸-영혼의 이원론, 우주적 권세들, ‘로고스’, ‘파이데이아’, 자연법 그리고 양심과 같은 우주론과 인간학을 둘러싼 개념은 물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대하드라마에서 모세 율법이 지닌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분석하는 데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www.itsla.edu

##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 렉스 교수, Ph.D.  
(폴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실라 아도요 교수, DMiss  
(폴리신학교) 타문화사역

데이빗 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한우리 교수, Ph.D.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 실천신학

### 2024년 여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장학금  
여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입학서류 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4년 5월 20일 (월) - 6월 14일 (금)
합격자 발표	2024년 6월 20일 (목)

■ 여름 학기 일정(5주/ 주 2회 수업)  
2024년 7월 8일 (월) - 8월 9일 (금)

■ 입학문의 [www.itsla.edu](http://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112 /admin.kor@itsla.edu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명예이사장 이영훈, Ph.D.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이가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기관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코드 스캔으로 입학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복음주의 신학과 더불어 초교파적이고 대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ITS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 넘치는 사랑 감사입니다

언제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오래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소중한 나의 부모님의 건강은 크고 튼튼한  
서울 메디칼 그룹의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한인 의료진들이  
30년 이상의 노하우로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